15~17세기 族譜 간행의 추이와 성격

序跋文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연재마지막회〕

權 奇 奭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2)수보修譜의 조직화와 참여계층의 확대

족보 제작의 집단화와 조직화는 족보 제작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계층으로 제한해 오던 상황을 변화시켰다. 동성간의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경향과 시기를 같이 하여, 족보의 제작이 점차 한 두 개인의 협력 수준에서 벗어나 다수의 친족이 집단화되어 조직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족보 제작의 집단화는 여러 지역에 걸친 광범위한 연락과, 기존 간행보의 통합 과정을 통해 실현되었다. 1575년의 □□전의이씨성보全義李氏姓譜□□의 제작에는 ‘ 내외자손으로서 녹을 먹는 자 ’50여인이 재산을 내고 공장工匠을 모아 반년만에 판각하였다고 한다. 이 족보는 특별히 지방관의 참여가 눈에 띄지 않는데, 몇몇 유력자가 아닌 다수의 중소관인들이 ‘ 각자 능력에 따라 재물을 내어 ’간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다수 인원의 조직적 협력 추세를 보여주는 초기 사례로서 주목된다. 1617년의 청주한씨 족보의 경우도 판각板刻을 위해서 호서 지방의 종인宗人이 능력에 따라 재물을 내어 그 역사役事를 도운 유사 사례이다.

17세기 이후로는 서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자손 간의 협력이 돋보인다. 1633년의 함풍이씨咸豊李氏 족보는 전란으로 대부분의 족보가 소실된 상황에서 이경정李景鼎이 면양沔陽에서 발견하여 전해진 구보舊譜와 함께, 나주羅州의 종장宗長 이지완李止完의 집에서 정덕正德 연간에 기록된 족보를 기초로 하여 이유회李惟誨가 상하 2편으로 편찬한 족보이다. 1638년의 청풍김씨淸風金氏 족보도 서울에 세거한 계파와 향촌에 세거하는 계파 사이의 협력이 돋보이는 사례이다. 이 가문은 발문의 필자 찰방察訪 김인金寅의 6대조에서 3파로 분기하였는데, 1파는 세세입조하여 서울에 거주하고, 나머지 2파는 해주에 세거하게 되었다. 김인金寅이 지은 발문에 따르면 그는 해주에 세거하는 일파의 자손이었는데, 1634년에 서울에 가서 경거京居하는 계파의 자손인 판부사判府事 김신국金藎國(1572~1657)을 만났더니 애초에 일가였던 것처럼 극진히 돈애敦愛하면서 족보 초고를 주며 해주의 내외족친을 추가로 기록해 주기를 부탁하여, 해주 거주 자손을 아는 대로 기록하여 바쳤다. 이에 경거京居 자손인 시랑侍郞 김육金堉(1580~1658)이 1636년에 성절사聖節使로서 명明에 갈 때 초고를 가져가서 북경北京의 옥하관玉河館에서 수찬修撰 작업을 완료하여 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1649년의 순흥안씨 족보는 서문의 필자 의성현령義城縣令 안응창安應昌이 경외보계京外譜系를 수록하고, 고려말에 갈라져 자손이 조정에 포열해 있는 3파의 후예들이 각기 그 계파를 고증하여‘ 삼파보三派譜 ’를 만들어 통합한 것인데, 경외보계를 정리하면서 지방 출신의 자손을 수록하고, 삼파보에는 주로 중앙관인 가계를 포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여러 지역의 자손이 협력하여 족보를 간행하는 사례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지역의 기존족보가 합보合譜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족보서에서잘나타난다.

또 하나 두드러지는 변화 경향은 제작에 참여하는 자손들 간의 조직적인 상호 공지와 연락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점이다. 특히 16세기말의 임진왜란으로 많은 보첩이 소실되고 자손이 흩어져 침체되어 가는 위기상황은 오히려 족적 결합과 상호 교류의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해 준 것으로 보인다. 1624년의 김녕김씨 족보는 임진왜란 이후 보첩이 소실되고 자손이 경향 각처에 흩어져 거주하게 된 상황에서,‘ 동종제군同宗諸君 ’과 통유通諭하여 족보를 간행하였다고 한다. 각지에 흩어진 자손들에게 ‘ 발서發書 ’하여 편집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모으는 등의 준비를 하는 방식도 일반화되었다. 예를 들어 1617년에 한혁韓赫이 지은 청주한씨淸州韓氏 족보 발문에는 한효중韓孝仲이 관향貫鄕의 지방관을 하면서 목민牧民하는 여가에 한혁에게 족보 간행을 제안했고, 한혁이 이에 동의하여 한효순韓孝純에게 그 뜻을 고하고, 낙하洛下(서울)의 제종인諸宗人에게 치서馳書하여 각 파各派에 연락하였다고 한다. 1630년에 대사간大司諫 이명준李命俊이 지은 전의이씨 족보서에따르면, 호서방백湖西方伯의 명으로 여러 도에 통문通文하여 각각 자손록을 거두어 하나로 모아서 편집하였다고 한다.

1656년의 청송김씨靑松金氏 족보는 김씨후손 중 영호지간嶺湖之間에 있는 사람 약간인이 ‘ 합모발서合謀發書 ’하여 문적文籍을 수집한 후, 서울에 모여 비용을 모으고 작업하여 10본을 인출印出하였다. 이 족보의 경우 과거에 하담荷潭 김시양金時讓(1581~1643)이 영남을 안절按節하면서 족보 간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방관 자손이 간행하는 방식에서 여러 자손이 집단적으로 비용을 모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으로써, 굳이 유력한 지방관을 배출하지 못하는 가문도 인쇄본 족보를 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서 1685년의 신천김씨信川金氏 족보의 편찬 과정에서 호남에 거주하는 약간인이 함께 모의하고 발서發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서울로 와서 재물과 공인工人을 모아 간행한 사례, 최석정崔錫鼎(1646~1715)이 서문을 쓴 계림鷄林(경주慶州)김씨金氏 족보의 편찬 과정에서 후예로서 기호畿湖의 사이에 거주하는 약간인이 원근종족에게 발서發書한 후 서울에 와서 재물을 모으고 인출한 사례 등을 들수있다.

족보 제작이더욱 조직화되면 서동종인이모여‘ 족회族會 ’를 열기도 하고 담당한 작업 내용에따라‘ 유사有司 ’를 선임하여 역할 분담을 하기도 하였다. 아직 조선후기의 본격적인 문중조직에 비해서는 미숙한 면이 있지만, 동종간同宗間의연락과 협력이 확대되고 고도화된 결과였다. 1659년의 봉성금씨鳳城琴氏 족보는 지방사족의 집단적 작업에 의한 족보 제작이라는 측면이 돋보이는 사례로서, 별파派別로 유사有司를 선출하는 등 초보적인 문중활동의 성격이 뚜렷하다. 이 족보는 영천榮川에 거주하는 진사 금시해琴是諧가 유고遺稿를 수득搜得하여, 문중 자제 금시희琴是熙를 시켜 수정하게 하고, 여러 파의 유사有司로 하여금 각자 상록詳錄하게 하여 제작하였다. 1년 이내에 완성하여 눌곡선영訥谷先塋에 회전會奠하는 날에 서좌序座하여 개권開卷하였다. 각 파별로 유사有司를 선정하고 선영에 제사하는 날에 맞추어 족보 간행을 기념하는 의식儀式을 준비하기도 하는 방식은 이전 시기에는 보기 드문 조직적인 문중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682년의 태인허씨泰仁許氏 족보는 허국형許國亨과 그 종숙宗叔 허관許燌을 비롯하여 동지 2~3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는데,‘ 족회族會 ’의 개최를 계기로 하여 족보 편찬을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족인간의 회합이나 조직을 매개로 한 집단적 친족 유대로 인해 족보 발간의 촉진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박사존朴師存이 지은 1707년의 반남박씨 족보 발문에서는 종회宗會를 열고 경외의 제종에게 발통發通하면서 ‘ 수단收單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수단은 입보入譜하고자 하는 사람이 족보에 기재될 자신의 선계先系와 가족사항 등을 적은 단자單子를 수합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족보에서 족보자료 수집을 주도하는 몇몇 인물이 개인적인 인연을 기회로 삼아 친족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수탐搜探하는 양상이 일반적이었던 것에 비해서, 18세기초에 이르면 정형화된 족보 제작 절차가확립되었음을알수있다.

족회族會의 개최와 유사有司의 분정分定 현상과 같이, 족보 제작을 담당하는 직임과 조직이 등장하는 것과 아울러, 시조묘소나 종가宗家와 같이 선대를 기념하는 유적이나 장소가 부각되어 종족 결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족보 간행에 즈음하여 시조의 묘소를 탐방하고 전배奠拜하는 의식을 통해 시조관련 유적이 동족결합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1616년의 창녕성씨 족보는 발문을 쓴 성진선成晉善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관향인 창녕에 이르러 성족을 모두 모으고 시중공侍中公(시조 중윤中尹 성인보成仁輔의 아들 성송공成松國)의 묘소에 배전拜奠한 후, 족인과 상의하여 족보를판각하였다. 한효중韓孝仲이 쓴 1617년의 청주한씨 족보 발문에도 1605년에 그가 성환독우成歡督郵가 되어 마침 청주목사淸州牧使가 된 한백겸韓百謙(1552~1615)과 함께 시조의 유기遺基를 방문하고 설단設壇한사실이 기록되어있다.

선대 사적을 찾아내어 기념하려는 노력이 활성화된 것과 짝하여, 힘들여 제작한 족보를 후세에 영구히 전하려는 노력도 강화되어, 배포와 보존과 같은 사후처리에도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른 사례로서 1546년의 순흥안씨 족보는 판본板本을 관향인 풍기군豊基郡으로 옮겨 보관하였고, 1633년의 함풍이씨咸豊李氏 족보의 경우 완성된 족보를 종가宗家에 비치하고 성족에게 분송分送하는 등의 조직적인 사후 배포 활동을 하였다. 1616년의 창녕성씨 족보의 목판을 보관하기 위해 경상도 흥해군興海郡 천곡사泉谷寺 곁에 장보실藏譜室을 지은 사례가 있다. 1634년의 전의이씨 족보는, 이후기李厚基의 발문에 따르면, 그가 영천군수榮川郡守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판각하여 간행이 완료된 후 시조를 위한 묘제전墓祭田을 관향貫鄕에 마련하고 동성同姓으로서 향리鄕吏인 자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보前譜의 간판刊板이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된 것을 감안하여 보전을 위해서 영천군榮川郡의 부석사浮石寺에 보관하였다. 이처럼 인쇄가 끝난 보판을 사찰에 보관하는 관행이 발견되는 것이 주목되는데, 산사山寺에 보관해야 전란시에도 안전하다는 점 이외에도 당시의 서적 간행 문화와 관련지어 고찰해 볼 필요가있는현상이다.

족보편찬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기한 여러 변화를 통해, 동족간의 연락의 활성화와 협력의 조직화로 이전까지 몇몇 개인이 고립분산적으로 제작에 힘쓰는 개인적 작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종인이 집단적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족보 제작을 매개로 한 지역적 연계망이 확대되는데, 이는 지방관으로 재직중인 족인에 국한된 연계망에서 지역에 세거하는 토착가문과 중앙관인 사이의 교류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결합으로 진전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족보 편찬에 참여한 인물의 출신과 근거지, 교유관계交遊關係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거쳐야 하지만, 필자의 연구가 아직까지 제작에 참여한 개별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관계로,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몇몇 사실을 근거로 대략의 윤곽을 파악해 보고자한다.

중앙관계보다는 향촌사회에 기반을 둔 가문의 수보修譜 역량 강화는 17세기 이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실 16세기까지 발간된 대규모 족보는 향촌사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 재경관인보在京官人譜 ’적인 성격이 강했다. 15~16세기에 정식으로 간행된 종합보는 중앙관인을 다수 내외손으로 포괄하고 있어서 간행비용이나 인력을 동원할 능력을 갖춘 중앙관인가문의 내외보內外譜였다. 대표적인예로 1476년의 □□안동권씨성화보□□를 들 수 있는데, 그 서문에서는 조정에 포열해 있는 관료의 다수가 권씨의 내외손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김안국金安國(1478~1543)이 양천허씨 족보서를 쓰면서 사대부 보첩에 대하여 충익부忠翊府에서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안동권씨족보(성화보)의 사례를 모범으로 하여 사족의 원파源派를 고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당시의 족보가 국

11면으로 계속